



(2018 - 02호)

# 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

## 목차(CONTENTS)

1. ‘파인’에서 ‘내 차보험 찾기 이용해보세요’
2. 임플란트, 보험사기 유의요망
3.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주요수법 및 유의사항!
4.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5. KEB하나은행의 기타 금융서비스
  - 더 똑똑해진 내 손안의 금융서비스! HAI(하이)뱅킹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 체결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1. '파인'에서 '내 차보험 찾기' 이용해보세요

### '파인'에서 '내 차보험 찾기' 이용해보세요



#### 핵심내용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2018년 5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  
준

사고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포스팅제(공동인수 前 공개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이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



개  
선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http://fine.fss.or.kr)  
또는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mycar.kidi.or.kr](http://mycar.kidi.or.kr)

**이용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이용절차** '파인'(fine.fss.or.kr) 또는 '내 차보험 찾기'(mycar.kidi.or.kr) 시스템 접속(휴대폰 등 모바일에서 접속 가능)  
... 보험회사 선택 및 계약정보 입력  
... 보험회사가 인수가능 여부 확인  
... 계약체결 진행

\* 인수가능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공동인수 진행

**이용가능 기간** 갱신시 보험만기일 前 30~5영업일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신규 가입차량은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

**보험료 수준** 각 보험회사의 TM채널 보험료로 가입

\* 채널별 개인용자동차보험료 수준(예시): [대면] 100.0 [TM] 88.6 [CM] 82.3

\*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

TM(Tele-Marketing)채널: 전문상담원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

CM(Cyber-Marketing)채널: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방식



## 소비자 유의사항

- 1 보험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상이하니, 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했어도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 2 자동차보험 가입시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최대 1개 준자동차 보험회사)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의 TM채널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 4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보험가입 거절사유를 확인해보세요
- 5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가입거절을 당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에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02-3702-8631, 8632)

## 2.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 요망!

### 1 개요

-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었으나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임
- 이에 따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2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가)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됩니다.

### [사례 ①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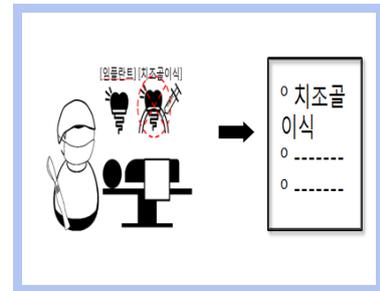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

\*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

⇒ A씨,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

###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 치조골(齒槽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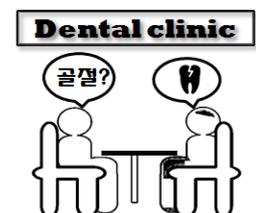
나)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됩니다.

### [사례 ② 질병을 재해골절로 허위진단]

◇◇치과는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

-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 충당

### 재해골절 위장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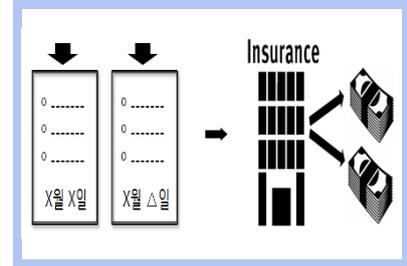
다)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안됩니다.

[사례 ③ 수술일자를 나누어 청구]

B씨는 X월 X일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하였는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 4개 일자로 나누어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 수령

⇒ B씨,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치조골 이식술 분할청구



라) 보험기간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면 안됩니다.

[사례 ④ 병력 발생일자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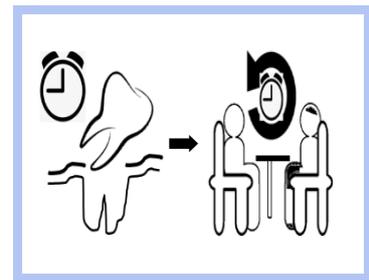
C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에만 보험금을 지급

⇒ C씨,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

병력 발생일자 변경



3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16.9.30.)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

- ✓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 ✓ 일반인으로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 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 ①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 ②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③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



## 3.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주요수법 및 유의사항!

### 1 개요

- ▣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신고받은 '바로 이 목소리' 및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여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
  - ✓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공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임
  - ✓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임
  - ✓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

## [보이스피싱 단계별 사기 수법]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 (2단계)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 →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 (4단계) 계좌 현황 파악 → (5단계) 금전 편취 시도 → (6단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확인 회피

## 2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시나리오)

###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 검찰·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접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OO 수사관입니다. □□도 ☆☆ 출신으로 농협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던 42세 김△△을 아십니까? 김△△을 주범으로 하는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들어보기](#)

•압수물품에서 경기도 OO시에서 발급된 귀하 명의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지갑이나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정OO 경사입니다. △△에서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되어 전화드렸습니다.

#### [2단계]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

-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하여 제3자의 간섭·도움을 차단

•사건번호 1234조사5678호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귀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 못했을 경우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피해자 입증이 완료된 게 아니므로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발설할 경우 체포되어 구금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녹취로 진행을 할 텐데,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되고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하니까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거짓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 또한,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이 전화하여 검사(경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뢰감을 제고하는 경우도 다수

•귀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로 보진 않지만, 피해자로 볼 자료도 없어 피해자 입증 조사가 필요합니다. 1차 혐의점도 없고 사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녹취만으로도 피해자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통장들은 동결처리하여 조회가 되지 않으며, 다른 통장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해 드리고 자산을 보호해 드리기 위한 자산보호조치(보호감시조치)를 취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 지금 지능범죄 수사과 측으로 연결해 드릴텐데 사건번호 말씀해주시면 계좌추적 조회,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공조수사 도와주실 겁니다.

#### [4단계] 계좌 현황 파악

-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할 경우 다음 사기 단계로 진행하고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사기 중단(통화 종료)

•귀하의 계좌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현재 귀하의 금융권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은행명**을 말씀해주세요. **몇 개의 계좌**가 어떠한 형태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해당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계좌추적조치 결과 귀하가 **진술한 금액 이상의 자금이**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그 **이하의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5단계] 금전 편취 시도

-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

•저희가 협조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수도권에서 저희가 파견한 **수사관을 직접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저희가 생성한 **검찰청 안전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인지 합법적인 자금인지 확인한 이후에는 원상복구**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재산권 판독**을 위해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합법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6단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예방 확인 회피

- 은행 창구를 내방하여 **고객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직원이 실시하는 **문진\***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지시

★ '예방진단표'를 통해 **검찰직원**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등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고 **답하도록** 요구했는지 등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고 확인

•창구업무를 보실 때 은행 직원이 ‘이 돈을 왜 찾냐’, ‘왜 보내냐’ 라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 질문을 하며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신 후 은행을 나오셔서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본 검사에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 <대출빙자형 사기>

###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

•OO은행 김△△대리입니다. 고객님께서 마이너스통장 발급신청 희망하신다고 해서 상담차 연락드렸어요.

[➡들어보기](#)

•OO중앙회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심사한 후 최종승인이 나와 OO에 내방하셔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세요. 우선 저한테 접수하시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접수를 이관해 드리면 대출전문담당자가 배정이 돼요. 정부지원 정책자금인데 접수처만 OO인 거예요.

[➡들어보기](#)

### [2단계] 개인정보 탈취 시도

-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

•대출 상담을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득활동은 어떻게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가요? 주거은행은 어디시죠?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신용카드는 몇 장 있으세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는 사용하시는 게 있으세요? 거주지는? 가족관계는요?

[➡들어보기](#)

### [3단계] 심리적 압박 및 신뢰 형성

- 대출이 부결되었으나 자신이 노력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를 형성

•대출가능금액은 최초에 말씀드린 가조회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고객님은 죄송하지만 정상승인은 아니고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왔어요. 월소득대비 채무상환능력, 조회건수 같은 게 합산되면서 현재 고객님 **채무한도**, 즉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초과되어 부결** 건으로 나왔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셔서 제가 심사과에서 **조건부 승인** 건으로 조율해온 거구요.

[➡들어보기](#)

•고객님은 1금융권 대출 거래 실적이 미비하지만 다행히 **상환능력평가**로 부결이 난 거라 이 부분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할 걸로 나왔어요. 제가 **실적을** 내야 해서 편법이지만 **예외심사건**으로 진행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 [4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 **인지세 110만원**이 발생하는데,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금융권에서 대신 **세금 신고처리**를 해드리는데, 고객님 명의로 신고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고객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대출이 부결되는 경우 인지세는 **환급절차** 진행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구요**.

•고객님 신용등급으로 정상적인 진행은 힘들고 제가 **편법**으로 도움드릴 수는 있어요. 사실 금융권에서 편법이라는 건 모두 **불법**이지만 현재까지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전혀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정부정책자금대출은 대리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확인 후 개인정보가 일치하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임시 **아이핀 발급**을 통해 **안전하게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기](#)

•고객님, 신용카드나 보험가입할 때 **정보활용동의**를 하셔서 **정부정책 혜택** 받으시라고 문자 보내드린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나와요.

### [5단계] 금전편취 시도

-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
  - ✓ 특히, 사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1~2일 후 최종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후 다른 요건 미달을 교투리 삼아 추가 입금 유도

•고객님은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는데, 고객님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 일부를 직접 상환처리**를 해주시면 바로 **당일 수령도 가능**하세요. OO대부 이용하셔서 300만원 정도 상환 가능하세요?

[➔들어보기](#)

•외부 업체에서 고객님의께 **자금 입금**해드리고, 두달동안 **연체없이 이용**하시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희가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메리트가 있으니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대출승인 후에 **업체 법인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3 소비자 유의사항



- **(의심하고)**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 스피싱을 의심
- **(전화끊고)** 보이 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
-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

★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검색)를 통해 직접 확인

- ✓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 필요
- ✓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
- **(신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

## 4.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 할 유의사항(10개)**을 선정

### 1 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

#### ①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 ✓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파인」에서 확인후 이용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②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 ✓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 이자율계산방법(<참고2>):파인(<http://fine.fss.or.kr>)-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http://www.klac.or.kr))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경찰서

### ③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 ✓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
- ✓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함

### ④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2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

### ⑤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 ✓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

### ⑥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 ✓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

## ⑦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 ✓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

## 3 기타 유의사항

## ⑧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 ✓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 ✓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 ⑨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

## ⑩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 ✓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5. KEB하나은행의 기타 금융서비스

### 1 더 똑똑해진 내 손안의 금융비서! HAI(하이)뱅킹

KEB하나은행은 손님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내 손안의 금융비서 ‘HAI(하이)뱅킹」」을 리뉴얼하였다.

이번 리뉴얼로 문자(SMS) 및 하나멤버스 하나톡 대화를 통해 적금 가입, 환전 신청, 자산현황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손님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HAI뱅킹 가입 손님은 국내 최초로 문자 대화만으로도 간편하게 적금 가입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추가 불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HAI뱅킹으로 달러(USD), 엔, 유로화에 대해 환전 신청을 하고 손님이 이용하기 편리한 영업점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해 졌으며 어디서든 손님의 휴대전화로 자산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생활에 더욱 밀착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KEB하나은행의 ‘HAI(하이)뱅킹’은 문자메시지(SMS)와 SNS를 통한 대화 방식으로 은행 적금 가입, 환전 신청, 간편 송금, 지방세 조회 및 납부 등 각종 금융 거래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금융 서비스이다.

### 2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 체결

KEB하나은행은 4월 25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및 횡령 등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른 업무제휴로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이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EB하나은행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 아동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